## 선현미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나이**
- 어린이(6~9세)

**주제**
- 목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자존감의 중요성을 배운다.
- 주제: 용기, 자존감

**핵심어**
- 용기, 자존감, 경문왕, 임금님, 귀, 당나귀, 모자, 대나무 숲

**한국 문화**
- 목표: 대나무의 생태적 특징과 용도, 의미를 알 수 있다.
- 요소: 대나무

**한국어**
- 목표: 모자, 옷, 신발, 장신구의 착용과 관련된 단어를 배운다.
- 단어: 쓰다-벗다, 입다-벗다, 신다-벗다, 끼다-빼다.
- 표현: 모자를 쓰다-모자를 벗다, 옷을 입다-옷을 벗다, 신발을 신다-신발을 벗다, 반지를 끼다-반지를 빼다.

## ✿ 구연활동내용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 있나요? 옛날 신라시대에 말 못 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었대요. 당나귀 귀처럼 큰 귀를 가진 것이 임금의 큰 고민이었죠. 그리고 그 귀를 본 사람은 모두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잘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신라시대에 경문왕이 있었어요. 경문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찾았어요. 거울에 얼굴을 요리조리 비추어 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요즘 들어 갑자기 귀가 자꾸자꾸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경문왕은 걱정이 되어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보다 내 귀가 더 커진 것 같은데, 큰일이군.'
그러던 어느 날, 쓰고 있던 모자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임금은 생각했어요.

'귀를 잘 가릴 수 있는 큰 모자가 필요해.'

그런데 임금은 신하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쓰던 모자가 찢어졌구나. 새 모자가 필요하겠네. 입이 무거운 모자 장인을 찾아라."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임금의 부탁대로 믿을 만한 모자 장인을 찾으러 나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궁궐에서 보고 들은 것은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는가?"
신하의 당부에 모자 장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모자 장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임금이 있는 궁궐로 들어갔어요.

모자 장인은 난생처음 임금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임금을 보자마자

## 이야기 들려주기

모자 장인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글쎄, 눈앞에서 임금이 당나귀처럼 큰 귀를 쫑긋하며 울상을 짓고 있지 뭐예요.

'아니, 저게 뭐야? 우리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 나 원 참,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겠군.'

모자 장인은 삐져나오는 웃음을 꾹꾹 참으며, 임금의 머리 크기를 쟀어요.

모자 장인은 임금의 큰 귀를 가릴 수 있을 만큼 길고 커다란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임금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모자 장인은 날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답답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으니 정말 미치겠군.'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모자 장인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모자 만들기를 멈추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무작정 집 근처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지요.

'어휴, 답답해. 그냥 크게 말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하겠는데……. 여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 괜찮겠지? 에잇, 대나무 숲에라도 말해 버려야지!'

모자 장인은 그동안 꾹꾹 참았던 말을 대나무 숲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이야기 들려주기

그렇게 하고 나니 속이 한결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이상한 소리가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임금에게도 전해졌지요.

때마침 다 만들어진 새 모자가 궁궐에 도착했어요. 임금은 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지요. 한 신하가 말했어요.

"임금님,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대나무 숲을 찾아 대나무를 몽땅 베어 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모자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모자를 쓰고,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생각했지요.

'내 비밀이 바람을 타고 모두에게 퍼졌구나.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일까?'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여전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이지요.

## ✿ 구연활동내용

###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당나귀 귀처럼 커진 귀를 숨기느라 임금은 귀를 가릴 것이 필요했죠. 무엇이었나요?

네, 모자였지요. 친구들도 모자를 가지고 있나요? 추울 때는 털모자를, 더울 때는 챙모자를 써요. 꾸미고 싶을 때나 예의를 갖출 때 모자를 쓰기도 해요. 모자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모자를 '쓰다'와 '벗다'가 있지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옷을 '입다'와 '벗다', 신발을 '신다'와 '벗다', 반지를 '끼다'와 '빼다'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요? 몸으로 표현하면서 익혀 보아요!

여러분, 임금의 귀를 보게 된 모자 장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말해 버렸지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그래요. 대나무 숲이었지요. 모자 장인이 혼자만 비밀을 간직하기가 답답해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비밀을 말해 버렸지요. 그런데 대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또, 대나무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대나무의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속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전통 물건도 많답니다. 대나무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 구연활동내용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신라 경문왕의 큰 귀를 본 모자 장인은 임금의 비밀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답답한 마음에 대나무 숲에 몰래 외쳤어요.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퍼졌어요. 경문왕은 고민이 깊어졌대요. 여러분도 경문왕처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